

# 도시를 해킹하기\*

— 권혁주의 웹툰 〈썬커〉와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에 나타난  
저항의 공간적 실천

유인혁\*\*

1. 도시를 해킹하기
2. <썬커>: 도시-네트워크를 해킹하기
3. 『야간 경비원의 일기』: 자본주의 도시를 해킹하기
4. 도시의 탈환을 상상하기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권혁주의 웹툰 〈썬커〉와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해킹을 ‘저항의 공간적 실천’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해킹이라는 일탈적 기술의 실천이 특정 장소나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행위로 나타나는 양상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2장은 권혁주의 웹툰 〈썬커〉를 살펴보았다. 〈썬커〉의 주인공 파이는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683)

이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 〈디지털폴리스와 도시정의의 쟁점들〉(22.3.25.)에서 발표한 동명의 글을 수정한 것이다. 이 글이 보완해야 할 문제들을 지적해주신 토론자 홍덕구 선생님과 익명의 세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해킹과 파쿠르의 수행자다. 그는 슈퍼 컴퓨터와 융합한 일종의 사이보그로서 도시의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신체로 나타났다. 한편 파이는 파쿠르 수행자로서 도시공간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통행로를 개척하는 인물이다. 즉 파이는 해킹과 파쿠르를 통해 기술적·공간적 보안을 깨뜨리고,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저항적 주체로서 재현되고 있었다.

3장은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를 살펴보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조지(훈)’은 도시 해킹의 수행자다. 여기서 도시 해킹이란 보안으로 통행이 금지된 도시공간 내부에 침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때 해킹은 다만 컴퓨터 기술의 응용에 국한되지 않고, 금지된 공간에 침투하는 해적 행위로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때 『야간 경비원의 일기』는 도시의 규제를 돌파하고자 하는 저항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에서 해킹이라는 반문화적 행위는, 우리가 도시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확장하거나 회복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대안적인 세계에 대한 열망과 환상을 표현하는 상징적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씬커>, 『야간 경비원의 일기』, 권혁주, 정지돈, 도시 해킹, 도시권, 저항의 공간적 실천)

## 1. 도시를 해킹하기

이 연구의 목적은 권혁주의 웹툰 <씬커>와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를 중심으로, 도시공간을 해킹하는 상상력의 양상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두 작품은 도시공간에서 자율적인 이동성의 문제

를 도시권(the rights to the city)의 차원에서 포착하고 있으며, 폐쇄적인 도시공간을 탈환·탈주하고자 하는 욕망을 ‘해킹’이라는 상상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때 해킹이라고 하는 일탈적 기술의 실천이 저항의 공간적 실천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살펴보겠다.

여기서 도시권이란 앙리 르페브르의 용어로서, 도시 재화에 대한 개인적 접근의 자유에서 시작하여 도시를 변화시킴으로써 인간적 삶을 개선하는 가능성에 대한 권리까지를 가리킨다.<sup>1)</sup> 한편 저항의 공간적 실천이란 정희선이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적 실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이 사회적으로 생산된다는 관점을 취하며, 사람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생산하는 ‘지각된 공간’을 공간적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일상적 방식을 생산하는 지배양식이다.<sup>2)</sup> 정희선은 이러한 공간적 실천 개념을 응용하여, “특정 장소를 선택하여 사회적 행위를 전개해 저항의 공간으로 전유하고 이해시키는 것”으로서 ‘저항의 공간적 실천’을 개념화했다.<sup>3)</sup>

이 글의 가설은 〈썬커〉와 『야간 경비원의 일기』 등 두 편의 문화적 텍스트가 해킹이라는 기술적 행위를 저항의 공간적 실천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해킹을 통해 우리가 도시공간을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상상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상력 내부에는 현대도시가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차원으로 확장된 영역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이때 두 텍스트는 해킹을 새로운 융합적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항적 실천의 은유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유를 보여주는 사례로

1)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한상연 역, 에이도스, 2014, 26쪽.

2)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89쪽.

3)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3, 105쪽.

주목할 필요가 있다.

〈씬커〉의 주인공 파이는 컴퓨터와 융합한 일종의 사이보그인데, 인터넷 전파와 정보를 직접 접촉·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의 바다’에서 금지된 영역을 함부로 침투하는 해커가 되었다. 한편 파이는 파쿠르 수행자로서 도시공간의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통행로를 개척하는 인물이다. 즉 파이는 기술적·공간적 보안을 꺾고 침입하는 주체다. 이때 해킹과 파쿠르는 사회적 규칙을 위반하는 실천으로서,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

또한 『야간 경비원의 일기』의 ‘조지(훈)’은 도시 해킹의 수행자다. 도시 해킹이란 보안으로 가로막힌 도시공간 내에 침투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조지(훈)’은 야간 경비원이라는 비정규직·비숙련 노동자가 됨으로써 보안시설에 침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때 해킹은 다만 컴퓨터 기술의 응용에 국한되지 않고, 금지된 공간에 침투하는 해적 행위로서 확장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여기서 두 서사적 텍스트는 모두 해킹을 저항의 공간적 실천으로 재현하고 있다. 두 텍스트에서 도시는 금지와 통제가 일상화된 공간이다. 그리고 해킹은 도시의 보안을 파훼하여 비밀의 장소를 열어젖히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때 도시공간에서 금지된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우리의 도시 경험을 확장하거나 회복하는 일이다. 그것은 주체에게 공간을 되돌려주고, 도시의 사용범위를 증가시키는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씬커〉: 도시-네트워크를 해킹하기

권혁주의 〈씬커〉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네이버에서 연재된 웹툰이

다. 이 웹툰은 네이버 플랫폼의 확장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되어 수출되었으며, 한편으로는 2015년 제2회 SF 어워드 만화부문 우수상, 2018년 한국방송비평상 모바일콘텐츠부문상 등을 수상하였다.

평소에 파쿠르를 즐기던 고등학생 '파이'는 우연한 계기로 해킹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보안회사에 견학을 갔다가 데이터센터 안에서 사고를 당한다. 이 사건으로 그에게는 전자파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 공중에 떠다니는 전자파를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와이파이를 이용해 하늘을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파이가 가는 곳마다 해킹사고와 사이버테러가 일어난다. 이를 추적하던 보안회사 대표 '신소영'은 파이가 자신의 아버지가 추진했던 인간개조 프로그램(썬키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거대한 음모와 세력에 노출되면서 파이를 도와 악당과 싸우게 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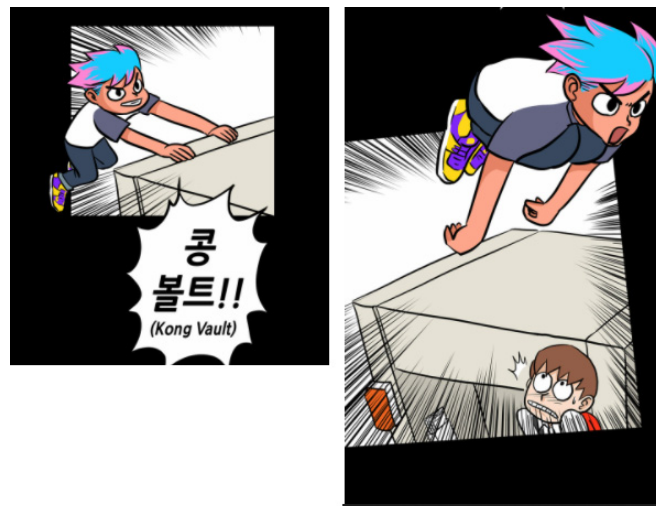
위 인용문은 스토리텔링 플랫폼 '네이버 시리즈'에서 〈썬키〉의 소개글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썬키〉의 대중문화적인 맥락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우선 〈썬키〉는 슈퍼히어로 장르에 속해 있다. 주인공 파이는 평범한 고등학생에서 전자파를 조작할 수 있는 초인으로 변화했다. 그는 10대 소년답게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면서도, 자신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악에 맞서 싸우는 책임감 있는 주체로 성장한다. 이러한 주인공은 이블테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피터 파커와 같은 소년 영웅과 유비관계에 있다.

한편 위 소개글은 〈썬키〉의 주인공 파이가 일종의 반문화(counter culture)적 행위주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우선 파이는 파쿠르 트레이서다. 파쿠르(parkour)는 코스나 경로를 뜻하는 프랑스어 parcours에서 파생된

4) 권혁주, 〈썬키〉, 네이버 시리즈.

([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_series?productNo=2195741](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_series?productNo=2195741), 최종접속일: 2022.5.11.)

단어다. 이는 도약이나 장애물 넘기, 구르기, 착지 등의 동작을 활용하여 도시의 인조환경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신체 기술을 뜻한다.<sup>5)</sup> 그리고 트레이서는 파쿠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다. 단적으로 말해 파쿠르 트레이서는 벽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다. 이는 정해진 통행의 경로를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에 대한 “전복적인 공간적 실천(subversive spatial practices)”의 성격을 가진다.<sup>6)</sup> 이러한 파쿠르의 수행은 종종 무단침입(trespassing)의 형태를 띠는데, 이때 파쿠르가 가진 일탈적이며 반항적인 성격은 더욱 명료하게 가시화된다.<sup>7)</sup>



〈그림 1〉 파이의 파쿠르 수행(〈썬커〉 1화)

5) Alec Wilkinson, “No Obstacles”, The New Yorker, 2007.4.9.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7/04/16/no-obstacles>, 최종접속일: 2022.5.11.)

6) Elizabeth De Freitas, “Parkour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Practices and the Plasticity of SchoolBuildings”,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Vol.27 No.3, 2011, p.209.

7) Elizabeth De Freitas, “Parkour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Practices and the Plasticity of SchoolBuildings”,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Vol.27 No.3, 2011, p.215.

위 그림은 〈씬커〉 첫 화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여기서 파이는 ‘콩 볼트’라고 하는 파쿠르 기술을 활용하여 은행 ATM 기계 위로 도약하고 있다. 다음의 컷에서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파이의 모습과, 이에 경악한 ‘일반 시민’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서 파이가 신체 능력을 위협적으로 과시하고, 도시공간을 비정상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자라는 사실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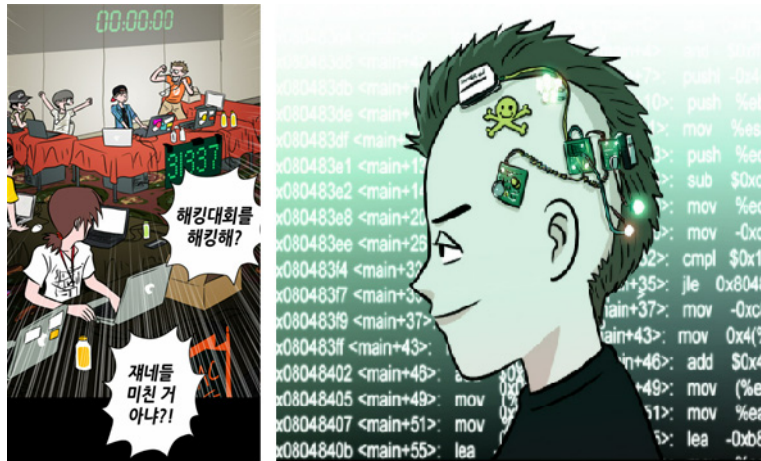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트레이서 파이라고 합니다. 제 경우에는 파쿠르를 하면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파쿠르 비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쿠르를 시작하면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낮은 턱이나 벽, 난간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걸 ‘파쿠르 비전(parkour vision)’이라고 합니다. 나한테만 보이는 길 위에서 달리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최고입니다!!<sup>8)</sup>

위 인용문에서 파이는 파쿠르 수행의 의미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쿠르는 도시의 환경에 대한 ‘낯설게하기’다. 파쿠르 수행자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건축물들을 새롭게 인식한다. 나아가 타인과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경험한다. 이는 파이에게 강렬한 자아의 고양감(“최고입니다!!!”)을 제공한다. 요컨대 파쿠르가 타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시를 경험하는 행위이며, 그것이 종종 사회적인 일탈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은, 파이를 일종의 반문화적 주체로 성격화하고 있다.<sup>9)</sup>

8) 권혁주, 〈씬커〉 1화, 네이버 시리즈.

(<https://series.naver.com/comic/detail.series?productNo=2195741>, 최종접속일: 2022.5.11.)

9) 한편 파이의 주변인들은 파쿠르를 일탈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식한다. 파이는 경비원(프롤로그), 또래집단(4화), 부모(9화)로부터 파쿠르를 수행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요청을 받는다.



〈그림 2〉 해커 대회 (〈썬커〉 0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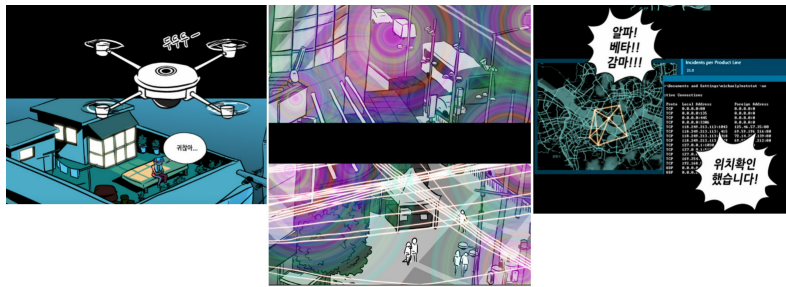
한편 〈썬커〉의 이야기는 국제 해킹 대회의 장면에서 시작한다. 등장 인물 지현우는 관리자의 시스템에 직접 침투하는 방법을 통해 다른 해커에게 이겼다. 이 “해킹대회를 해킹”하는 행위는, 해킹 행위의 본질이 규칙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해커의 이미지 또한 반문화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2에서 해커는 모호크 헤어 스타일에 즐리 로저 문신과 반도체 장신구가 결합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작가 권혁주가 해커를 반문화적으로 연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기호들이다. 우선 모호크 스타일은 주류문화에 대하여 저항적이어서, ‘비정상적’인 외양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추구했던 펑크 하위문화의 대표적인 기표다. 즉 권혁주는 해커를 사회적·문화적 ‘정상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적대적인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즐리 로저 표식은 가장 대표적인 해적의 상징이다. 즉 권혁주는 해커를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무법자로서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장신구들은 해커를 일종의 사이보그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 장



신구들은 신체 자체에 이식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해커는 피와 전기가 함께 흐르는 이질적인 신체로 나타난다. 종합하자면 <씬커>는 의도적으로 해커를 반문화적이며 이질적인 주체로서 등장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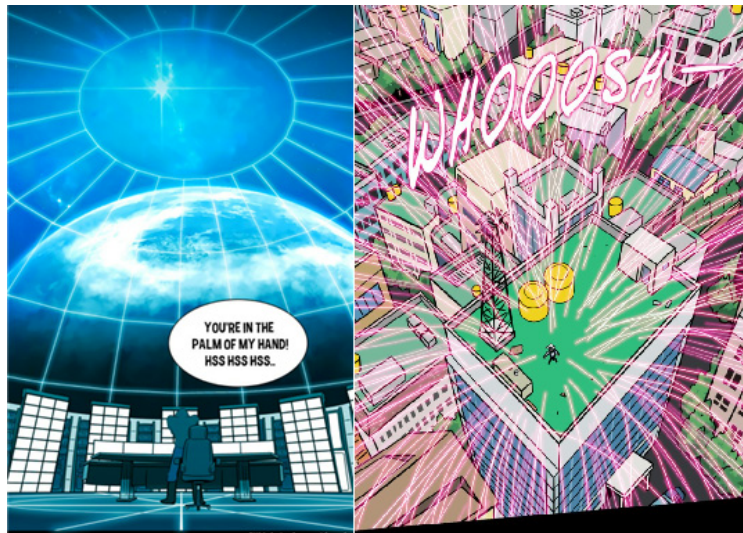
<씬커>는 파이가 고등학교 해커 동아리에 가입하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서사가 전개됨에 따라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파이의 신체에는 ‘슈퍼 컴퓨터’가 이식됐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가 파이의 신체는 주변의 디지털 장치에 일종의 악성코드나 바이러스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파이가 활발히 파쿠르를 수행하는 동안, 전기나 전파로 제어되는 각종 시스템 유지 장치들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도시에는 대혼잡이 벌어지게 된다. 여기서 파이는 두 반문화적인 정체성의 교차점이다. 그는 한편으로 도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이동의 자율성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컴퓨터 시스템을 교란한다. 그는 사회적 한계와 규칙을 가로질러 무질서한 해방감을 만끽하는 주체다.



<그림 3> 감시망으로서의 네트워크 이미지(<씬커> 1화)

한편 이러한 저항성은 촘촘한 지배 시스템과 짝패를 이루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파이의 탈주가 해방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도시공간이 개인에 대하여 억압적인 환경으로 재현된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림3의 첫 번째 컷은 파이가 드론에 의해 감시당하는 장면이다. 두 번째 컷은 도시환경에 편재하고 있는 전파(電波)를 시각화한 장면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및 무선통신기술은 사회의 일상과 그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나 ‘유비쿼터스’ 등의 단어들은 디지털 네트워크가 다만 ‘가상공간’으로 분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자체와 융합했다는 점을 드러낸다. 요컨대 전파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기술적인 에테르다. 세 번째 컷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편재성이 감시사회에 대한 공포증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이가 일으키고 있는 악성 오류들은 실시간으로 포착된다. 파이는 자신이 언제 어디서나 감시되고 있으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여기서 사회의 촘촘한 감시망은, 그 시각에서 모기를 부리거나 감시망의 운영을 교란하는 행위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림 4〉 지배장치로서 네트워크 이미지(〈썬커〉 28화)

한편 〈씬커〉의 악당은 도시의 네트워크 환경을 감시와 억압의 무기로 활용한다. 그는 코드마스터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비상한 능력의 해커다. 그림 410)에서 코드마스터는 수많은 컴퓨터를 통해서 지구 전반을 감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때 코드마스터는 디지털 감시장치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른쪽 컷에서 코드마스터는 지구상에 편재하는 전파를 활용하여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만화적인 허용이다. 다만 이러한 허구는 도시공간에 촘촘한 감시망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공포증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코드마스터와 파이의 대결은, 기술적·사회적 판옵티콘과 그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수인(囚人)의 대립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파이의 반문화적 행위는 ‘저항의 공간적 실천’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파쿠르는 사회적·문화적 훈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도시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킨다. 또한 해킹은 보안을 꿰뚫고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려는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이는 사회적 공간의 감시, 규율, 통제에 대해 저항적이다. 그리하여 파이의 파쿠르와 해킹은 도시공간의 보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몸짓이 된다.<sup>11)</sup> 그것은 도시에 대한 경험을 확장·갱신

10) CHU KWON, *XINKER*, vol.28, WEBTOON.

([https://www.webtoons.com/en/super-hero/xinker/0x19-code-master-7/viewer?title\\_no=541&episode\\_no=26](https://www.webtoons.com/en/super-hero/xinker/0x19-code-master-7/viewer?title_no=541&episode_no=26), 최종접속일: 2022.5.11.)

네이버 시리즈는 〈씬커〉의 유료 연재 회차의 스크린샷을 금지하고 있어서 네이버의 해외 서비스 플랫폼인 WEBTOON에서 부분 발췌하였다.

11) 박광택·이승제·배상준에 따르면 해킹과 파쿠르는 “최근의 게임에서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도시체험의 특징적 요소 두 가지”로서, 규범적이며 표준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저항성과 창조성 그리고 유희성”의 실천으로 재현되고 있다. (박광택·이승제·배상준, 『게임 〈와치독2〉에서 재현되는 현대 도시성—‘해킹’과 ‘파쿠르’ 시스템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4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 68-69쪽.) 즉

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 3. 『야간 경비원의 일기』: 자본주의 도시를 해킹하기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는 서울스퀘어에서 일하는 야간 경비원의 이야기다. 서술자인 ‘나’는 서울스퀘어의 야간 경비원으로 취직 후 ‘조지(훈)’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조지(훈)’은 작가이자 야간 경비원인 ‘블라디미르 니키포로프’에게 매료되어 있다.

어느 시인은 우리 시대를 ‘건물주와 야간 경비원의 시대’라고 했다. 역시 야간 경비의 수호성인이자 부코비나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국립대학을 나온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소비에트 연방 최초이자 최후의 파울 첼란 전 공자인 블라디미르 니키포로프는 야간 경비원으로 일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체제주의자라는 의미라고 했다. 건물주와 야간 경비는 체제와 반체제, 애널리스트와 시인,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서사와 반서사, 사와 반사, 휴머니즘과 안티 휴머니즘, ‘자본주의’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포스트 미디어업과 포스트 미디어를 뜻한다.

야간 경비원은 포스트 휴먼이에요.<sup>12)</sup>

위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야간 경비원을 포스트휴먼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포스트휴먼이란 ‘인간 너머의 인간’이라는 뜻으로, 대개는 과학기술 등의 도움을 얻어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신인류를 지칭한다.<sup>13)</sup> 그러

---

해킹과 파쿠르라는 기호는 대중문화의 장을 가로질러 생산되고 있다.

12)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12쪽.

13)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포스트휴먼을 “인류가 진화나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변형, 초월, 혹은 제거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정의하고 있다.

나 윗글의 맥락에서 포스트휴먼은 그러한 초월성의 주체가 전혀 아니다. 여기서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동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하여 대안적이거나 저항적인 주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나는 휴먼과 포스트휴먼의 관계를 ‘체제와 반체제’, ‘에널리스트와 시인’,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등 이항대립적인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특히 그것은 ‘건물주와 야간 경비원의 관계, 즉 사유재산을 충분히 소유한 자와 그것을 지키는 데 투여된 노동자의 관계를 뜻한다. 이때 포스트휴먼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 너머의 존재이자, 자본주의로부터 소외된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전유됐다.<sup>14)</sup>

가) 조지(훈)과 내가 일하는 건물은 서울역 앞에 있는 거대한 적벽색 빌딩으로 서울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대우그룹의 본사였지만 김우중이 감방에 갇힌 뒤로 매각과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서울역에 도착한 촌놈들이 처음 보는 건물이라고, 서울의 얼굴, 서울의 관문, 서울의 랜드마크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경비원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송 주임은 면접 때부터 누차 강조했다.<sup>15)</sup>

나) 경비원은 투명인간이다. 유니폼을 입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또는 사람들 눈에는 유니폼만 보일 뿐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중략) 서울스퀘어에서 일하는 직장인 대부분이 경비원과 비슷한 연배다. (중략) 가장 흔한 일은 보지 않는 것이다. 유니폼 위로 텅 빈 허공만 존재한다

(<https://www.lexico.com/definition/posthumanism>, 최종접속일: 2022.5.1.); 한편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는 근대적 인간성에 대한 비판이자 반성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로지 브라이도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13-39쪽을 참조.

14) 뒤에서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야간 경비원은 해킹에 최적화된 주체다. 즉 정지돈은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를 전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된 비숙련 노동자를 반문화적 기술실천의 주체로 전환시키고 있다.

15)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13쪽.

는 듯, 그곳에는 시선을 던지지 않는다. 1년 동안 아침저녁으로 마주쳐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심지어 있었나, 경비원이?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믿기지 않는다고? 현실은 늘 믿기지 않는 법이다.

현실: 투명인간

비현실: 정규직 채용<sup>16)</sup>

이러한 이분법은 야간 경비원이 처한 환경에 대한 서술 속에서 강화된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서울스퀘어의 직원이다. 서울스퀘어는 서울역의 정면에 있으며, 무엇보다 거대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서울의 얼굴, 서울의 관문,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상징성을 지닌 장소다. 그래서 ‘송주임’은 서울스퀘어에서 일하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나’는 서울스퀘어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나’가 감시단속적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비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유니폼을 입는 순간, 신기하게도 자신의 인격과 개성이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 이때 ‘나’는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비슷한 연배”의 청년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이중 후자는 장소에 대한 권리나 소속감을 적절히 소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경비원이 일종의 ‘투명인간’으로 비가시화된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

그래서 저는 서울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조지(훈)은 말했다. 나는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추웠고 조용했고 북극에서 몹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밤하늘은 드물게 깨끗하게 빛났다. (중략)

16)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77-78쪽.

조지(훈)은 국제야간경비원연맹이 자유 소프트웨어재단과 연대를 맺었다고 말했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된 하드웨어와 하드웨어 안의 세계. 이 세계 안에 연결된 그 안의 세계. 두 세계를 전복해서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sup>17)</sup>

(나)

니키 타르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 침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러나 우리에게 키key가 있으므로, 우리는 현실을 조작할 수 있다.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컴퓨터에서 그들의 핸드폰에서 정보를 추출하고 변형하고 가공하고 빌딩과 도시와 웹에 노이즈를 일으키고 교란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신체와 정신을 리뉴얼할 수 있다.<sup>18)</sup>

여기서 도시공간이 계급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주류에 의해 비주류가 비가시화되었다는 인식은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도시에 대한 많은 문화적 재현물이 재생산하고 있는 문법이다. 진실로 흥미로운 지점은 정지돈이 야간 경비원의 소외된 현실을 저항의 조건으로 전유하는 양상이다. 인용문 (가)에서 등장인물 ‘조지(훈)’은 도시공간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는 계급적으로 분단된 도시를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로 통합하고자 한다. 그런데 ‘조지(훈)’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투명인간으로 타자화되기 때문이다. ‘조지(훈)’이 자신의 롤모델 블라디미르 니키포로프(니키 타르)를 인용하는 가운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야간 경비원들은 “보이지 않으므로” 침투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 그들은 마치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의 그리핀처럼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악당이 될 수 있다.

17)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47-48쪽.

18)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78쪽.

여기서 투명인간이라는 기호는 보이지 않는 약자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괴물로 전환되어 있다. 이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대중문화에서 다양하게 변주되어온 모티프다. 예를 들어 아서 코난 도일의 『진홍색 연구』에서 살인범 호프는 “도시에서 누군가를 미행해야 한다면 마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sup>19)</sup>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의 개인으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프는 자신이 복수해야 할 대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들켜지 않을 수 있었다. 스티븐 프리어스의 영화 〈더티 프리티 씽〉에서 런던의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국 관리의 장기를 적출 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보여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차를 몰고, 방을 청소해주고, 좃을 빨아주는 사람들이다.”<sup>20)</sup> 여기서 도시의 지배적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약자들을 소외시키는 환경이 정확히 약자의 무기로 전환된 것이다.

정지돈은 이러한 모순적인 도시사회의 조건을 서사화하고 있다. 인용문 나)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훌륭한 해커가 될 수 있다. 경비원들은 자신을 사용하는 타자(‘그들’)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집’과 ‘직장’, ‘컴퓨터’, ‘핸드폰’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즉 경비원은 ‘도시와 웹’ 양쪽을 쉽게 해킹할 수 있고, 따라서 타자의 체계를 쉽게 교란할 수 있는 존재다. 요컨대 ‘조지(훈)’은 경비원이 투명인간처럼 소외되었다는 차별적 조건을, ‘도시와 웹’을 해킹하기 위한 최적화된 환경으로 전유하고 있다.

19) 아서 코난 도일, 『진홍색 연구』, 박상은 역, 문예춘추, 2012, 181쪽.

20) 스티븐 프리어스 감독, 〈더티 프리티 씽 Dirty Pretty Things〉, BBC Films & Celador Films, 2002.



나는 메인컨트롤러가 있는 7층, 15층, 19층으로 세 사람을 안내했다. 조지(훈)과 마주친 경비원이 있었지만 그냥 반갑게 인사했다. 어쩐 일이세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랑 놀러왔어요. 우와. 하우 얼 유? 아임 파인 땡큐.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 미디어 파사드에는 조지(훈)이 준비한 메시지가 떴다. 밤새도록, 밤 열두 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메시지는 반복되었다. 막는 사람도 없었다. 관계자들은 모두 잠을 자는 시간이었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늘 있는 이벤트겠거니 생각했다.

조지(훈)과 그의 동료들은 이를 뒤 주거침입 및 사유재산침해로 구속 수감되었다.<sup>21)</sup>

조지(훈)은 서울을 되찾기 위해 도시와 웹을 동시에 해킹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를 해킹하여 본인들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미디어 파사드란 건물의 벽면을 미디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미디어 파사드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 상업적이거나 공익적인 광고 등이 상영된다. 즉 조지(훈)은 서울이라는 자본주의 도시공간의 ‘얼굴’을 전복적인 메시지의 미디어로 전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금지된 장소를 침투하는 행위와 금지된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행위를 통합하는 것으로서, 직서적(literal)인 의미에서 도시공간을 해킹한 것이다.

예상 외로 언론은 사건을 크게 다뤘다. 알고 보니 도시해킹이라고 제1세계에서는 이미 유행한 적이 있는 개념이었다. 도시해커들은 금지되고 제한된 장소를 탐험하고 점거한다. 예술가, 사회운동가, 학자,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등이 도시해킹을 시도했다. 『도시해킹』의 저자 브래들리 L. 개럿은 도시해킹을 “보안을 잠식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시민이 할 수 있

21)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112-113쪽.

는 것과 없는 것을 규정하는 말끔한 서사에 위협을 가하여 부당하게 제약  
받아온 도시 속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행위.”<sup>22)</sup>

이러한 이야기는 브래들리 L. 개럿의 도시 해킹의 개념을 확장하여 서  
사화한 것이다. 위 발췌문에서 직접 인용되고 있는 브래들리 L. 개럿은  
도시탐험가를 연구한 인류학자다. 도시탐험이란 초고층건물이나 철교  
(鐵橋)의 꼭대기, 하수도나 방공호 등 “금지되고 제한된 장소를 탐험하  
고 접거”하는 행위다. 개럿은 이러한 도시탐험을 해킹으로 은유했다. 개럿  
에 따르면 “도시탐험가는 가상공간의 해커처럼 도시 건축의 균열들을 살  
살이 탐색한다. 이들의 목적은 우리가 매일 생각 없이 지나치는 공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sup>23)</sup> 이때 해킹은 어떠한 제한에도 가  
로막히는 일 없이 도시공간의 모든 구석들을 탐험(Explore Everything)하  
려는 의지를 은유하는 것이다.

정지돈은 ‘도시 해킹’을 다만 은유적인 개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도시공간의 디지털 장치를 교란하는 행위로 서술하고 있다. ‘조지  
(훈)’이 서울스퀘어의 미디어 파사드에 어떠한 메시지를 투사했는지는  
자세히 서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타인의 미디어를 탈취하여, 자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해적 행위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정리하자면 조지(훈)의 도시 해킹은 야간 경비원이라고 하는 소외된  
노동자와 해커라고 하는 무법자의 형상을 결합한 결과 탄생한 개념이다.  
이때 도시 해킹은 ‘저항의 공간적 실천’을 상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조지(훈)은 서울의 상징적 장소를 해킹하고자 한다. 그  
럼으로써 부자와 빈자, 사용자와 사용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22)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113쪽.

23) 브래들리 L. 개럿, 『도시해킹』, 오수원 역, 메디치, 2014, 39쪽.

있는 사회적 규약들을 뒤집고자 한다. 이것은 “서울은 우리의 것(Seoul is Ours)”이라고 선언하고, 도시의 주도권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탈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4. 도시의 탈환을 상상하기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적 텍스트 속에 나타난 도시 해킹의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해보았다. 2장에서는 권혁주의 웹툰 〈씬커〉에서 해킹과 파쿠르가 도시공간의 감시, 규율, 통제에 대해 저항적인 반문화적 행위로 나타나는 양상을 재구성했다. 3장에서는 정지돈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에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체제를 교란하는 ‘도시 해킹’의 주체로 전환되는 서사를 점검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화적 텍스트들이 각종 사회적·문화적·공간적 금지를 가로질러, 도시공간의 경험이나 의미를 해방 및 확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대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형식들이 실제 현실적·정치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비판을 수행하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이는 우선 예술작품의 문화적 효용을 계측하기 어렵다는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텍스트 내부에 저항적인 정치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일 것이다. 〈씬커〉에서 주인공 파이는 도시공간을 해킹하는 저항적 주체의 위치에서 출발하지만, 곧 과잉발달한 기술에 대항하여 인간적인 도덕과 힘, 가치들을 실천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기계들에 맞서 인간의 세계와 가치를 수호하는 소년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씬커〉의 저항성의 재료들은 곧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력’을 강조하는 서사 내부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양상은 〈씬커〉의 주인공 파이가 소년 영웅으

로서 품행과 책임감을 학습하는 것으로 서사화된다.

한편 『야간 경비원의 일기』는 현실비판의 효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측면이 있다. 『야간 경비원의 일기』에서 조지(훈)의 도시 해킹은 저항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도시가 이 퍼포먼스를 마케팅의 일환으로 전유하기 때문이다. 조지(훈)의 거사 후, “서울스퀘어의 소유주인 다국적 기업은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관용을 베풀 것처럼 굴었다.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지돈은 도시 해킹에 관련된 기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아이러니를 강조한다. 과거 롯데월드타워에 도시 해킹이 이루어졌는데, “롯데 측은 당황했지만 상하이 금융센터, 브라질 예수상,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초고층 명소들만 카메라에 담는 라스칼로프의 피사체가 된 게 싫지만은 않은 눈치”<sup>24)</sup>였다. 여기서 자본주의 도시는 저항적 몸짓까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조지(훈)은 애인의 부정을 의심하는 송주임을 돕기 위해 보안 공간에 침투했다. 즉 조지(훈)은 도시 해킹의 역량을 활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서 조지(훈)은 도시공간의 반영웅이기보다는, 일종의 소악당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양상은 예술적 비판의 효과를 불신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퇴행성’<sup>25)</sup>의 지표로 쉽게 읽힐 수 있다. 정리하자면 〈썬커〉와 『야간 경비원의 일기』의 주인공들은 저항적인 몸짓을 선보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진실한 위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썬커〉와 『야간 경비원의 일기』에 나타나는 도시 해킹이 자

24) 〈도시의 난자, 월드타워 이렇게 뚫었다〉, MBC, 2018.2.21.;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116쪽에서 재인용.

25) 광영빈, 『주석과 비평, 혹은 두 개의 폐허 사이에서』, 『문학과 사회』 제29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16, 291쪽.

본주의 도시에 대한 비판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두 텍스트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다. 두 텍스트는 우리 사회의 환상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우리의 도시가 부자유의 공간이며, 새로운 기술은 그러한 상황을 강화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인식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두 텍스트는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도시에 대한 권리'의 테마들이 대중적인 환상 속에 자리 잡았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비록 새롭게 만들어질 도시공간의 이미지가 구현되지 않았지만, 대안적인 세계에 대한 문화적인 요구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아서 코난 도일, 『진홍색 연구』, 박상은 역, 문예춘추, 2012.  
정지돈, 『야간 경비원의 일기』, 현대문학, 2019.  
권혁주, 〈씬커〉, 네이버 웹툰, 2014~2020.  
CHU KWON, *XINK3R*, WEBTOON, 2015~2020.  
Fears, Stephen, Film *Dirty Pretty Things*, BBC Films & Celador Films, 2002. (더티 프리티 씽)

### 2. 논문 및 단행본

- 곽영빈, 「주석과 비평, 혹은 두 개의 폐허 사이에서」, 『문학과 사회』 제29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16, 274-303쪽.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한상연 역, 에이도스, 2014.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이경란 역, 아카넷, 2015.  
박광택·이승제·배상준, 「게임 〈와치독2〉에서 재현되는 현대 도시성—‘해킹’과 ‘파쿠르’ 시스템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34호,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8, 67-91쪽.  
브래들리 L. 개럿, 『도시해킹』, 오수원 역, 메디치, 2014.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역, 에코리브르, 2011.  
정희선, 「소수자 저항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의 정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3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013, 101-116쪽.  
De Freitas, Elizabeth, “Parkour and the Built Environment: Spatial Practices and the Plasticity of School Buildings”, *Journal of Curriculum Theorizing*, Vol.27 No.3, 2011, pp.209-220.

### 3. 기타자료

- Alec Wilkinson, “No Obstacles”, *The New Yorker*, 2007.4.9.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07/04/16/no-obstacles>)

## Abstract

### Hacking the City

– The Spatial Practice of Resistance in Hyuk-Joo Kwon’s Webtoon *XINK3R*  
and Ji-don Jeong’s Novel *The Diary of a Night guard*

Yu, In-Hyeok(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representation of ‘city hacking’ in the webtoon *XINK3R* by Hyuk-joo Kwon and the novel *The Diary of a Night Guard* by Ji-don Jeong as a concrete example of ‘spatial practice of resistance’. In other words, I tried to reconstruct the pattern in which hacking as the practice of deviant technology appears as a social practice that changes the meaning of a specific place or space.

In Chapter 2, webtoon *XINK3R* is examined. In *XINK3R*, Pi, the protagonist, is a practitioner of hacking and parkour. He appeared as a kind of cyborg fused with a supercomputer, with a body disrupting the city’s network. On the other hand, as a parkour practitioner, Pi is a person who does not follow the regulations of urban space and pioneers his own path. In other words, Pi was being reproduced as a resisting subject that penetrated technical and spatial security through hacking and parkour and violated social rules.

In Chapter 3, *The Diary of a Night Guard* is examined. The main character of this novel, ‘George (Hoon)’, is an accomplice of city hacking. Here, city hacking refers to the act of infiltrating into an urban space where passage is prohibited due to security. At this time, hacking is not limited to the application of computer technology, but has extended meaning as piracy infiltrating prohibited areas. In this context, *The Diary of a Night Guard* can be understood as expressing the rebellious desire to break through the city’s regulations.

In these texts, the countercultural practice of hacking appears to expand or restore the way we experience urban space. These narratives are valuable in that they are symbolic forms of expressing utopian aspirations and fantasies for an alternative world.

352 대중서사연구 제28권 2호

(Keywords: *Xink3R*, *The Night Watchman's Diary*, Hyuk-Joo Kwon, Ji-don Jeong,  
city hacking, the rights to the city, spatial practice of resistance)

논문투고일 2022년 5월 13일

논문심사일 2022년 6월 7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15일